

2030세대의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

문 지 효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졸업

배 성 만[†]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상태분노 및 반응적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에 이상 39세 이하의 성인 471명(남성 238명, 여성 233명)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인식 척도,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반응적 공격성 척도, 한국판 우울 척도(CES-D)를 포함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우울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은 각각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상태분노에서 반응적 공격성 순으로 이어지는 이중 매개경로가 성불평등인식과 우울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인식이 2030세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밝히며, 2030세대의 정신건강 개입 시 정서 및 행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우울, 성불평등인식, 상태분노, 반응적 공격성, 2030세대

* 이 논문은 제 1 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 기초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배성만 /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부교수 /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Tel: 041-550-1482 / E-mail: spirit73@hanmail.net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국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우울증 환자는 약 35.1% 증가하였고, 특히 20대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동안 127.1% 급증하는 등 초기 성인기에 우울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초기 성인기는 대학 진학, 거주 독립, 취업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성정혜, 김춘경, 2017; 이주영, 2013; Arnett, 2014).

초기 성인기의 우울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울장애는 높은 유병률과 의료비 부담을 동반하는 주요 정신 질환으로 보고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이러한 의료 통계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2010년 우울증으로 인한 작업 손실 비용이 약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근태, 2012). 특히, 경제활동의 핵심 계층인 20-30대의 우울 증가 현상은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이현주, 정은희, 2016). 또한, 초기 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될 경우 중·장년기 및 노년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송지영 외, 2018; Havighurst, 1972).

기존 연구들은 초기 성인기의 우울 관련 요인으로 부정적 자기 평가, 학업·진로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등 개인적 요인을 주로 탐색했으나(김경숙, 2020; 김지경 외, 2018), 사회·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정슬기, 김지선, 2021; Cabezas-Rodríguez et al., 2020). 반면 최근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와 같은 사회·맥락적 요인이 초기 성인기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정슬기, 김지선, 2021; Cabezas-Rodríguez et al., 2020). 특히 젠더 요인으로서 성불평등인식은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 정신건강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송나경, 2020; 정슬기, 김지선, 2021; Pascoe & Smart Richman, 2009).

성불평등인식은 개인이 사회 전반에서 성별 간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남녀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한 차별 전반을 포괄한다(김경숙, 2020; 박은지, 2020). 실제로 성불평등을 경험한 빈도가 높을수록 인식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류연규, 김영미, 2019; 임혜경, 최금순, 2020), 이러한 인식은 분노와 우울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마경희 외, 2018; Pascoe & Smart Richman, 2009). 예컨대 마경희 외(2018)는 성차별 경험이 남성 집단의 성불평등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분노 수준이 높아져 결국 우울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Pascoe와 Smart Richman(2009)의 메타분석 역시 지각된 차별이 분노와 무력감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우울 및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유발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Munar(2018)는 구조적 불평등 상황에서 분노가 가장 빈번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임을 강조하며, 이후 우울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혔다. 즉, 성불평등인식이 분노를 매개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분노가 단순한

정서적 반응을 넘어 불평등 경험에서 ‘부당함 (injustice)’을 환기시키는 핵심적 반응임을 시사한다(Agnew, 2001).

분노(anger)는 사소한 불쾌감에서 극심한 분노까지 다양한 강도로 나타나는 정서로, 상태분노(state anger)와 특성분노(trait anger)로 구분된다(Spielberger et al., 1995). 상태분노는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분노 상태를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 상태분노는 초기 성인의 우울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영인, 1994; 박민향, 정계현, 2018; 이원희, 김춘자, 2006). 특히 한국 2030세대 남성의 경우 성불평등인식이 여성혐오 표현과 결합되어 사회적 무력감 및 열패감을 강화하고, 이는 우울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안상수 외, 2015; 연지영, 이훈, 2020; Fleming et al., 2018). 여성 역시 성불평등 상황에서 상태분노가 증가하지만, 주변의 역차별 비난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강희영, 최유정, 2019; 홍지아, 2022; Radke et al., 2016). 즉, 성불평등인식이 유발하는 분노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며, 이는 곧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성별 차이를 형성한다(손은주 외, 2017; 이수연 외, 2012; Garcia et al., 2010; Remen et al., 2002). 더 나아가 분노는 개인이 차별적 경험에 직면했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일 뿐 아니라, 차별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신호로 기능한다. 그러나 분노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를 약화시키고 대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무력감과 우울을 증폭시키며(Munar, 2018),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불평등 경험의 심리적 영향을 설명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성불평등인식은 분노뿐 아니라 외현화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공격성(aggression)은 분노가 대인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표출된 형태로, 언어적·신체적 행동을 포함한다(Lauritsen & Heimer, 2008).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선제적 공격(proactive)과 반응적 공격(reactive)으로 구분되며(Poulin & Boivin, 2000; DeWall et al., 2012), 반응적 공격성은 좌절이나 위협 상황에서 촉발되는 충동적·분노적 반응으로, 격렬한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erkowitz, 1989). 반복된 성불평등 경험은 분노와 좌절을 누적시켜 반응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마경희 외, 2018; 연지영, 이훈, 2020), 이러한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개인에게 통제력 상실감과 자아존중감 저하를 유발하고, 결국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Dodge, 2006). 또한 Xiong 외(2021)는 차별 경험이 부정 정서를 매개로 반응적 공격성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경로가 다시 우울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Stop Hate UK (2021)의 보고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여성혐오 동기 사건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성불평등인식이 사회적 공격성과 혐오 범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단순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Georgeac & Rattan, 2019),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구체적 심리 경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Landry & Mercurio(2009)는 통제감, Fischer와 Bolton (2010)은 공정성 신념, 마경희 외(2018)는 분노를 매개변수로 제안했으며, Kinias와 Kim(2012)과 Pascoe, Smart Richman(2009)는 특히 분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불평등인식이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을 촉발하고, 이 두 변인을 매개로 우울에 이르는 과정을 실증적으

로 규명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아가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여성 집단에 국한되어 왔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경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불평등인식이 성별에 따라 유사하게 작동하는지, 혹은 경로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종합하면, 초기 성인기 우울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 위주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이 시기의 정신건강 이해에는 사회·맥락적 요인과 정서 경험의 상호작용 고려가 중요하다(정슬기, 김지선 2021; Cabezas-Rodríguez et al., 2020). 특히 성불평등인식과 초기 성인기 우울의 관계가 제안되었지만, 이 관계를 매개할 구체적 변수와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사회·맥락적 요인으로서 성불평등인식을 다루고, 이를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 경로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층 우울을 이해하는 새로운 설명틀을 제시하고,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정신건강 개입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라 초기 성인기(만 19세 이상~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거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구글폼)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총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471)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238	50.5
	여	233	49.5
나이 (M = 29.17)	만 20 - 29세	253	53.7
	만 30 - 39세	218	46.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	4.5
	대학교 재학	59	12.5
	대학교 졸업	357	75.8
	대학원 이상	34	7.2
직업	대학(원)생	82	17.4
	전업주부	13	2.8
	무직	5	1.1
	전문/관리직	43	9.1
	생산/기술 관련직	50	10.6
	사무직	205	43.5
	공무원/공무직	13	2.8
	서비스/판매직	44	9.3
	자영업	12	2.5
	기타	4	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9	50.7
	경기도	125	26.5
	인천광역시	25	5.3
	기타	71	17.5
종교	없음	307	65.2
	개신교(기독교)	91	19.3
	천주교	36	7.6
	불교	34	7.2
	유교	3	0.6
이념 성향	매우 진보	21	4.5
	진보	134	28.6
	중도	263	56.1
	보수	51	10.9
월 소득 (단위 : 만 원)	100 미만	75	17.4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49	2.8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195	1.1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113	9.1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29	10.6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9	43.5
	1,000만 원 이상	1	0.2
성불평등 관심도	전혀 관심이 없다	52	11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167	35.5
	약간 관심이 있는 편이다	220	46.7
	매우 관심이 있다	32	6.8

492명(남 242명, 여 250명)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약 15분이 소요되었으며, 조사 시작 전 모든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고, 참여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받았다.

수집된 데이터 중 일관성 없는 응답(예: 단 문항 반복, 빠른 응답 등)이 확인된 21명분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7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 471명 중 남성은 238명(50.5%), 여성은 233명(49.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9.17세($SD = 3.86$)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53명(53.7%), 30대가 218명(46.3%)으로 구성되었고, 거주 지역은 서울·경기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였다. 또한 성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있는 참여자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 관심 있음 6.8%, 다소 관심 있음 46.7%).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승인번호: 2022-06-009-001)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성불평등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2030 젠더 인식 조사” 설문 중 성불평등 관련 문항들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사회 전반, 취업·승진,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불평등 경험 정도를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성평등(1점)”부터 “매우 성불평등(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문항 총점이 높을수록 성불평등인식 정도가 크다. 류연규, 김영미(201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신뢰도($\alpha = .82$)가 관찰되었다.

상태분노 척도

Spielberger 외(1988)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의 한국어판(STAXI-K, 전경구 외, 1997)을 활용하였다. 원 척도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등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분노 상태를 측정하는 상태분노(10문항)만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물건을 부수고 싶다” 등 일시적 분노 상태를 묘사하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점은 1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분노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STAXI-K는 전경구 외(2001)가 개발한 통합판을 기반으로 하며, 윤정민, 이승연(2021)은 이 척도의 신뢰도를 .91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태분노 척도 신뢰도가 $\alpha = .91$ 로 높게 나타났다.

반응적 공격성 척도

Denson 외(2006)이 개발한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DAQ)를 이하나(2009)가 한국어로 타당화(DAQ-K)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분노반추(10문항), 보복계획(9문항), 반응적 공격행동(10문항)의 세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하나(2009)의 연구에서 DAQ-K의 전체 신뢰도는 $\alpha =$

.9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우울 척도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경구 외(2001)가 한국어로 통합 개발한 20문항 한국판을 사용했다. 이 척도는 “지난 일주일간 우울감”, “집중력 저하”, “식욕 부진” 등 우울 관련 인지·행동·신체 증상을 평가한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1점)”에서 “거의 매일 있었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은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총점 15점 이하는 정상 범위, 16-22점은 경도 우울, 23점 이상은 고도 우울로 간주한다(신민섭 외, 2015). 손지빈, 홍정순(2021)은 한국판 CES-D의 신뢰도를 $\alpha = .94$ 로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도 우울 척도 신뢰도는 $\alpha = .94$ 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이어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다. 성불평등인식, 상태분노, 반응적 공격성,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Kline, 2015 기준: |왜도| < 2, |첨도| < 7 충족 시 정규성 만족).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8.0을 사용하였으며, Anderson & Gerbing(1988)의 2단계 방법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측정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먼저 실시하였고, 모형 적합도 평가지표로 χ^2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 - lewis index (TLI) 등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χ^2 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2000), $RMSEA \leq 0.08$, $CFI \cdot TLI \geq 0.95$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문수백, 2010; Hu & Bentler, 1999). 추가로 Bentler & Bonett(1980)의 χ^2 차이 검증을 통해 모형 간 적합도 개선 여부를 비교하였다($\Delta df = 1$ 당 χ^2 값 ≥ 3.84 일 때 $p < .05$ 유의).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재추출 5,000회, 95% 신뢰구간)을 활용하였다. AMOS 기본 결과는 총 간접효과만을 제공하므로, Cheung와 Lau(2008)과 Macho 과 Ledermann(2011)가 제안한 방식을 참고하여 개별 매개경로를 평가하기 위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도입하였다. 팬텀 변수는 분산을 0으로 고정하여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상태분노 및 반응적 공격성을 통한 개별 및 순차적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절차는 배병렬(2011)의 방법을 따라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n = 238$)과 여성($n = 233$)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성불평등인식(3문항 평균), 상태분노(3문항 평균), 반응적 공격성(분노반추·보복계획·행동적 전위공격성 3지표 평균), 우울(우울 묶음 3지표 평균)을 표준화한 뒤,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우울에 이르는 연속 매개 경로를 집단별로 산출하였다.

각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로 보고하였으며, 연속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5,000회 부트스트랩(편향 보정 95% 신뢰구간)으로 평가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초 분포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전체 표본의 결과는 표 2에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정상 범위 내에 분포하였고, Cronbach's α 값 또한 .80 이상으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2를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 가정도 충족되었다. 전체 상관분석에서 성불평등인식은 상

태분노($r = .71, p < .01$), 반응적 공격성($r = .66, p < .01$), 우울($r = .79, p < .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태분노는 반응적 공격성($r = .75, p < .01$)과 우울($r = .82,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응적 공격성과 우울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r = .79, p < .01$)이 확인되었다. 성별로 분리한 분석에서도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와 연결되는 상관은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응적 공격성과 우울 간의 상관은 남성 집단에서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변인들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라 경향성의 강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주요 변인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성불평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분석 (전체 및 성별 집단)

구분	변인	전체 M (SD)	남성 M (SD)	여성 M (SD)	α	1	2	3	4
1	성불평등인식	2.39 (0.94)	2.98 (0.72)	3.12 (0.74)	0.87	-			
2	상태분노	1.61 (0.66)	2.85 (0.78)	2.93 (0.80)	0.92	0.71**	-		
3	반응적 공격성	2.89 (1.25)	2.64 (0.69)	2.70 (0.73)	0.89	0.66**	0.75**	-	
4	우울	1.82 (0.53)	2.91 (0.81)	3.05 (0.83)	0.94	0.79**	0.81**	0.79**	-

모든 상관계수는 Pearson's r 임. ** $p < .01$.

전체 상관계수 기준이며, 성별별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음.

남성: $r_{12} = .74^{**}, r_{13} = .65^{**}, r_{14} = .80^{**}, r_{23} = .76^{**}, r_{24} = .85^{**}, r_{34} = .80^{**}$.

여성: $r_{12} = .68^{**}, r_{13} = .62^{**}, r_{14} = .76^{**}, r_{23} = .73^{**}, r_{24} = .76^{**}, r_{34} = .75^{**}$.

주. $N = 471$, 남성 $n = 238$, 여성 $n = 233$.

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 = 471)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성불평등인식	성불평등인식 1	1	.87	-	-
	성불평등인식 2	.99	.82	.045	21.99***
	성불평등인식 3	1.03	.86	.043	23.87***
상태분노	상태분노 1	1	.95	-	-
	상태분노 2	.99	.93	.025	39.38***
	상태분노 3	.96	.91	.026	36.43***
반응적 공격성	행동적 전위 공격성	1	.93	-	-
	보복계획	1.15	.95	.030	21.99***
	분노 반추	.99	.85	.035	28.30***
우울	우울 1	1	.95	-	-
	우울 2	1	.93	.024	40.72***
	우울 3	.99	.95	.022	44.38***

*** $p < .001$.

주. CR(critical ratio) = t 값

등인식, 상태분노, 반응적 공격성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공차 값은 .358-.460, VIF 값은 2.18-2.79로 나타났다. 모든 지표가 일반적 기준(VIF < 10, 공차 > .10)을 충족하였으므로 본 모형에서 다중 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 참조).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구조적 경로를 검토하기에 앞서, 각 잠재변인이 측정변수들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잠재변인인 성불평등인식, 상태분노, 반응적 공

격성, 우울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이 중 성불평등인식, 분노, 우울은 단일 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 묶음(item parceling)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 묶음 시에는 문항의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식을 사용하였다(Little et al., 2013). 그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세 개의 측정변수(성불평등인식1, 2, 3), 상태분노는 세 개의 측정변수(분노1, 2, 3), 우울도 세 개의 측정변수(우울1, 2, 3)로 구성되었으며, 반응적 공격성은 기존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구성된 측정변인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72.72$ ($df = 48$), CFI = .98, TLI = .97, RMSEA = .07 (90% 신뢰구간 = [.063,

.086))로 나타났으며, 이는 Hu와 Bentler(1999)가 제안한 기준(CFI \geq .95, TLI \geq .95, RMSEA \leq .08)을 만족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잠재변인들이 측정변수에 의해 적절히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의 요인부하량 결과를 살펴보면, 성불평등인식 관련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82-.87, 상태분노는 .91-.95, 반응적 공격성은 .85-.95, 우울은 .93-.95의 범위에 있었으며, 모든 요인부하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측정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나타낸다.

구조모형 검증

다음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경로가 유의한지를 확인하고, 각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 및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상태분노($\beta = 0.77, p < .001$), 반응적 공격성($\beta = 0.25, p < .001$), 우울($\beta = 0.41, p < .001$) 모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57	.77	.031	18.40***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34	.25	.074	4.57***
성불평등인식 → 우울	.24	.41	.026	9.26***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1.13	.62	.098	11.48***
상태분노 → 우울	.24	.31	.038	6.35***
반응적 공격성 → 우울	.13	.29	.019	6.59***

*** $p < .001$.

주. CR(critical ratio) = t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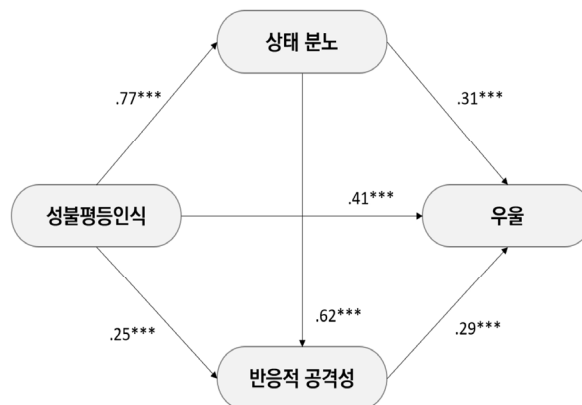


그림 1. 구조 모형

두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불평등을 인식할수록 상태분노와 공격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우울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상태분노는 반응적 공격성($\beta = 0.62, p < .001$) 및 우울($\beta = 0.31, p < .001$) 모두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분노가 공격적 행동과 정서적 고통 모두의 선행요인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공격성은 우울($\beta = 0.29,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 결과는 반응적 공격성이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정서적 고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중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중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은 AMOS 28.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재표본 추출 횟수는 5,000회, 신뢰수준은 95%로 설정하였다. 부트

표 5. 각 변인의 직접 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 효과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77***		.77***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25***	.64*** (.52-.79)	.89***
성불평등인식 → 우울	.41***	.26*** (.22-.32)	.67***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62***		.62***
상태분노 → 우울	.31***	.14*** (.91-.21)	.45***
반응적 공격성 → 우울	.29***		.29***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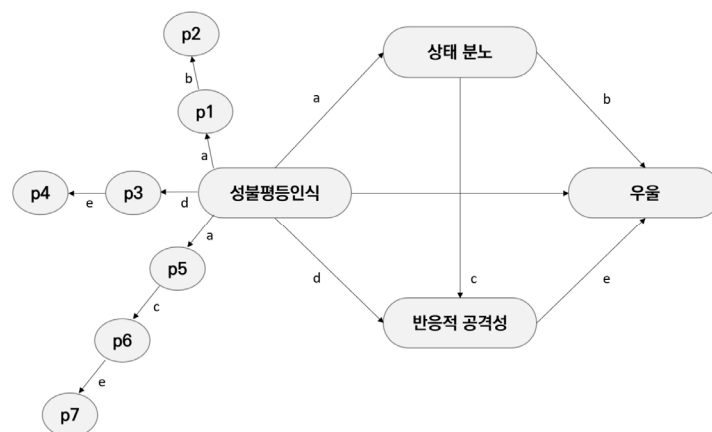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의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 설정

표 6.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경로	효과 크기	SE	95% 신뢰구간(CI)	
			하한값	상한값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우울	p2	.14***	.03	.08 .20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 우울	p4	.04***	.01	.02 .07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 우울	p7	.08***	.02	.05 .12

*** $p < .001$.

스트래핑 분석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여, 해당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Hayes, 2013; Macho & Ledermann, 2011).

AMOS 기본 분석에서는 복수의 매개변인을 포함한 모델에서 총 간접효과만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매개 경로와 이중 매개경로(serial mediation)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 기법을 활용하였다(Cheung & Lau, 2007). 팬텀 변수는 표면상에는 모델에 나타나지 않지만, 계산 목적을 위해 삽입된 구조로,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각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총 세 가지 간접 경로를 설정하고 각 경로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경로인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우울’의 간접효과는 $B = 0.14, p < .001, 95\% CI [0.08, 0.20]$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성불평등인식이 분노를 매개로 하여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경로인 ‘성불평등인식 → 반응적 공격성 → 우울’의 간접효과는 $B = 0.04, p < .001, 95\% CI [0.02, 0.07]$ 로 확인되었으며, 역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성불평등인식으로 인한 공격성이 우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경로인 ‘성불평등인식 →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 →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는 $B = 0.08, p < .001, 95\% CI [0.05, 0.12]$ 로 나타났다. 해당 신뢰구간 역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반응(상태분노)과 행동적 반응(반응적 공격성)이 독립적으로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간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성불평등인식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단순한 감정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세 가지 간접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상태분노 → 반응적 공격성’을 거치는 이중 매개경로의 효과 역시 독립적으로 입증되었다. 이는 성불평등인식이 초기 성인기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에 있어 정서적·행동적 요인의 순차적 매개

기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성별 다집단 분석

성별에 따른 경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n = 238$)과 여성($n = 233$) 집단을 구분하여 동일한 연구모형을 추정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주요 변인 간 상관은 높은 정적 연관을 보였다(남성: 성불평등인식과 상태분노 $r = .74$,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 $r = .76$, 반응적 공격성과 우울 $r = .80$; 여성: 각각 $r = .68$, $.73$, $.75$).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반으로 한 연속 매개 추정에서, 남성 집단은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에 미치는 영향 $\beta = .74(p < .001)$, 상태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beta = .61(p < .001)$, 반응적 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beta = .29(p < .001)$ 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여성 집단에서도 동일한 경로가 유의하였으며($\beta = .68$, $\beta = .57$, $\beta = .31$; 모두 $p < .001$), 특히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연속 간접효과는 남성에서 효과크기 = $.129$, 95% CI $[.07, .19]$, 여성에서 효과크기 = $.117$, 95% CI $[.07, .18]$ 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면서도, 세부 경로 강도에는 성별 차이가 일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39

세 성인 남녀 471명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불평등인식은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불평등을 경험하거나 인식 수준이 높은 개인이 더 큰 심리적 고통과 우울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abezas-Rodríguez et al., 2020; Pascoe & Smart Richman, 2009).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성불평등인식은 두 집단 모두에서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로 이어지는 경향은 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에서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면서도, 정서적 반응의 강도에서는 성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Pascoe 와 Smart Richman(2009)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성불평등인식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높은 인식 수준은 심리적 고통 증가와 신체적 건강 악화에도 관련이 있었다(Landry & Mercurio, 2009). 국내 연구에서도 여성의 경우 성불평등인식이 높을수록 기본권 침해를 강하게 인식하며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5), 남성의 경우 높은 인식이 사회적 특권 상실감으로 이어져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이웅, 임란, 2014; 마경희 외, 2018). 이로써 초기성인기 우울을 이해할 때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문

화적 요인으로서의 성불평등인식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태분노의 매개효과 결과는 예상과 부합하였다. 성불평등인식이 높은 개인은 특유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이 분노가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Munar, 2018; Pascoe & Smart Richman, 2009). Kinias 와 Kim(2012), 그리고 Lam(2004)의 연구도 성불평등 상황에서 분노가 촉발되면 우울감이 증폭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유머러스하거나 애매한 방식으로 성불평등을 경험할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정석(2013)과 김학준(2014)은 일베(온라인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성불평등인식이 높은 여성이 비판적 발언을 할 때 역차별 논쟁에 휘말려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강희영과 최유정(2019)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여성은 역차별 취급에 분노와 우울을 동시에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을 지지하며, 특히 여성 집단에서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로 이어지는 경향이 더 강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성불평등에 따른 좌절감이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피드백이나 사회적 제약이 다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Sue(2010)는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을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 혹은 의도적으로 전달되는 미묘한 모욕·비하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경험이 당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모호한 행동이나 발언까

지 잠재적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이를 ‘건강한 편집증(healthy paranoia)’이라 개념화하였다. 즉, 일상적으로 축적되는 사소한 차별적 경험은 실제 위협 가능성에 대한 경계 태도를 과도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복된 성불평등인식은 잠재적 위협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게 하며, 작은 자극에도 적대적으로 대응하게 할 수 있다(류연규, 김영미, 2019; Fischer & Bolton Holz, 2010).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사회적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통제력 상실감과 무력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Dodge, 2006). 국내에서도 성불평등 상황에서 20대 남성의 반응적 공격성이 남성 집단의 지위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남성의 관계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었다(마경희 외, 2018).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 같은 맥락과 일치한다.

넷째, 상태분노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노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김현욱, 2002; Agnew, 2001; Ganem, 2010). Agnew(2001)의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일상적 스트레스(예: 지속적 성불평등인식)는 개인에게 긴장(strain)을 주어 분노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정민, 이승연(2021)은 Agnew의 관점을 바탕으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긴장과 상태분노가 정보처리 능력을 저하시켜 적절한 불만 표출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충동적인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성불평등인식으로 인한 상태 분노가 과도한 반응적 공격성으로 표출됨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이론적 경로

가 초기성인기의 정서·행동 반응에 적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분노와 공격적 행동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성불평등을 인식한 후 분노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이며, 이러한 분노가 우울로 이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마경희 외, 2018; Munar, 2018; Pascoe & Smart Richman, 2009). 또한 한국 사회에서 성불평등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오재호, 박원익, 2020), 성불평등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 성별에 대한 적대감이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된다(연지영, 이훈, 2020; Crockenberg, 1981). 이러한 결과는 Pascoe & Smart Richman(2009)의 메타분석에서 확인된 인식된 차별이 개인의 부정적 정서를 촉발하고, 이러한 정서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를 매개한다는 경로와 일치한다. 즉,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를 촉발하고, 그 결과 반응적 공격성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본 연구의 경로는 이론적으로도 일관성을 갖는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양상을 반영하는 경험적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Faludi(1992)의 backlash 개념이 성평등 진전 과정에서 기존 성역할 규범을 고수하려는 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됨을 설명하듯, 국내 연구들 역시 성역할 인식, 역차별 논란, 성 관련 정책 변화가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류연규, 김영미, 2019; 홍지아,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성불평등인식으로 인해 유발된 공격적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통제력 상실감과 자아존중감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우울을 심화시키는 경로로 작용한다

(이윤정, 김주희 2019; 정다운, 옥소연, 2022; Dodge, 2006; Lauritsen & Heimer,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의 매개 경로는 성불평등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넘어 사회적 갈등의 정서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상적·이론적 기여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30세대에서 성불평등인식과 우울 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중 매개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초기 성인기 우울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구체화했다. 기존 연구에서 단순한 상관관계만 확인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성불평등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모형을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초기 성인기의 우울을 평가할 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내담자의 주관적 인식 수준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정서·행동 반응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경로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를 거쳐 반응적 공격성 및 우울로 이어지는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정서적 반응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불평등이 특정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030세대 전반에서 중요한 정신건강 요인으로 작동하면서도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불평등인식이 상태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우울 예

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 지점을 제시했다. 즉, 초기성인기의 우울 문제에 개입할 때 단순히 인지적 측면(불평등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태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정서 조절 기술과 반응적 공격성을 대체할 수 있는 건설적인 문제 해결 및 자기주장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불평등 관련 논의가 갈등적 대립을 심화시키기보다 정서적 반응(상태 분노)과 행동적 표출(반응적 공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예방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불평등인식-상태분노-반응적 공격성-우울의 연속적 매개 경로를 성별 다집단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참신성과 사회적 시의성을 동시에 가진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과 혐오 표현이 심화되는 맥락 속에서, 이러한 정서·행동적 반응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임상적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면담이나 생리적 지표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병행하여 성불평등인식과 정서·행동 반응 간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표집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로 구성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편의표집 방식으로 모집되었으므로 2030세대 전반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참여자의 대다수가 성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높은 편이어서 응답의 편향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배경이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성별 집단을 구분하여 연속 매개 경로의 보편성과 일부 강도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횡단 자료 특성상 인과적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 이외의 교차정체성(예: 연령대, 학력, 정치성향 등)에 따른 경로 차이는 검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연구는 다층·다집단 설계를 적용해 경로의 맥락적 변이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석 (2013).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의 부상(浮上). *문화과학*, 75, 273-30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34264>
- 강차선, 박정환 (2016).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 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제주지역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8), 273-27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15602>
- 강희영, 최유정 (2019).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여성가족재단.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5424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1년도 우울증

- 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
- 고영인 (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 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KCI.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89013
- 김경숙 (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활용. *한국보건행정학회*, 31(3), 374-38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63902>
- 김수아, 이예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 '여성혐오' 및 성차별 사건 관련 게시판 토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3), 67-10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8209>
- 김수진 (2016). 여성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 *교육비평*, 38, 163-18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64345>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511881>
- 김학준 (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 동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S-SPACE.<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34439>
- 김현옥 (2002). 분노조절훈련과 명상훈련이 청소년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RISS.<https://www.riss.kr/link?id=T8187468>
- 류연규,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0295>
- 마경희, 조영주, 문희영, 이은아, 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4&idx=122958>
- 문수백 (2010).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https://www.riss.kr/link?id=M11599526>
- 박민향, 정계현 (2018).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14(2), 191-203.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8.14.2.191>
- 박은지 (2020). 성인 여성의 성차별 인식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정체감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https://www.riss.kr/link?id=T15485658>
- 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2483084

- 성정혜, 김춘경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 및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91-109.
<https://www.riss.kr/link?id=A106108997>
- 손은주, 김성진, 최인철 (2017). 성차별에 대응한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 [학술대회 발표 초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33. <https://www.koreanpsychology.or.kr>
- 손지빈, 홍정순 (2021).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9(2), 269-297.
<https://doi.org/10.33949/tws.2021.109.2.009>
- 송나경 (2020).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과 우울 영향. *인문사회* 21, 11(4), 405-420.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819040>
- 송지영, 백종우, 김중우 (2018). 초기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조기 발견 및 관리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research/board/boardView.do?bn=SNMH_COMMON_BOARD&fno=84&menu_cd=03_02_00_05&no=645
- 신민섭, 이미소, 최자연, 서성민, 노은정, 조지훈, 권준수 (2015). 스마트폰 기반 장·노년용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의 인지 기능 향상 효과: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855-872.
<https://www.riss.kr/link?id=A104241335>
- 안상수, 김인순, 이정현, 윤보라 (2015).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idx=115027&p=37>
- 연지영, 이훈 (2020). 혐오가 유머를 만날 때: 타인 혐오를 증폭시키는 유머와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한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54(4), 219-25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43895>
- 오세연 (2017).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1), 39-65.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5156446>
- 오재호, 박원익 (2020).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연구보고서]. 경기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41171>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https://www.riss.kr/link?id=M12642031>
- 윤정민, 이승연 (2021). 20, 30대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경험과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지각된 조직불공정성과 상태분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1), 1-18.
<https://doi.org/10.20406/kjcs.2021.2.27.1.1>
- 이근태. (2012).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 [연구보고서]. LG경제연구원.
https://www.lgbr.co.kr/uploadFiles/ko/pdf/eco/LG-BI1211-02_20120820092234.pdf
- 이니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 147-18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9380>
- 이민아 (2021). 여자라서 우울하다고?. 개마고원.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856773>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 5-33.
-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3488853>
- 이웅, 임란 (2014). 박탈 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93-122.
-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534860>
- 이원희, 김춘자 (2006). 임상간호사의 우울과 지각된 스트레스, 피로 및 분노 간의 관계. *대한간호과학회지*, 36(6), 925-932.
- <http://doi.org/10.4040/jkan.2006.36.6.925>
- 이윤정, & 김주희. (2019). 한국 성소수자 건강의 경험과 문제.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7(2), 195-204.
- <https://doi.org/10.14370/jewnr.2021.27.2.195>
- 이주영 (2013).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인지 변인의 매개효과: 희망, 사회적 효능감, 부정적 자동 사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https://www.riss.kr/link?id=T13054198>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https://www.riss.kr/link?id=A103671206>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RISS.
- <https://www.riss.kr/link?id=T11681589>
- 이현주, 정은희 (2016). 생애과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노년기 건강: 초기 성인기 및 중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중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53-84.
-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535135>
- 임혜경, 최금순 (2020).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 <https://www.riss.kr/link?id=A109432470>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 - 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1810124>
- 정다운, 옥소연 (2022).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216311>
- 정슬기, 김지선 (2021). 한국 성인의 우울을 예측하는 사회적 결정요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1), 229-258.
- <http://dx.doi.org/10.24301/MHSW.2021.3.49.1.229>
- 정책기획위원회. (2018). 2030 젠더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조권중, 최지원 (2021). 서울 시민의 사회갈등 인식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63701>
- 허민숙 (2017).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한국여성학*, 33(2), 77-105.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9097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ttps://accesson.kr/kjcp/v.19/1/161/26659>
- 홍지아 (2022).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

- 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99-15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80119>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http://dx.doi.org/10.1177/0022427801038004001>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27-51.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3.100901.13523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Arnett, J. J.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929382.001.0001>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https://doi.org/10.1037/0003-066X.38.11.1145>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https://doi.org/10.1037/0033-2909.88.3.588>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73.
<https://doi.org/10.1037/0033-2909.106.1.59>
- Cabezas-Rodríguez, M., Utzet, M., Bacigalupe, A., & Artazcoz, L. (2020). Gender inequalities in depression and mental well-being: The role of gender roles, work - family arrangements, and social support. *Social Science & Medicine*, 254, 112972.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20.112972>
- Cheung, G. W., & Lau, R. S. (2008). Testing mediation and suppression effects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2), 295-325.
<https://doi.org/10.1177/1094428107300343>
- Crockenberg, S. (1981). Infantile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 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3), 857-865.
<https://doi.org/10.2307/1129087>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https://doi.org/10.1037/0022-3514.90.6.1032>
- DeWall, C. N., Finkel, E. J., & Denson, T. F. (2012). Self-control and agg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1), 20-25.
<https://doi.org/10.1177/0963721411429451>
- Dodge, K. (2006). Translational science in action: Hostile attributional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 and Psychopathology*, 18(3), 791-814.
<https://doi.org/10.1017/S0954579406060391>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https://doi.org/10.1037/0022-3514.53.6.1146>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Company.
- Faludi, S. (1992).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Crown Publishing Group.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Backlash.html?id=k101_yxiALIC&redir_esc=y
- Fischer, A. R., & Bolton Holz, K. (2010). Testing a model of women's personal sense of justice, control, well-being, and distress in the context of sexist discrimin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97-310.
<https://doi.org/10.1111/j.1471-6402.2010.01576.x>
- Fleming, P. J., Patterson, T. L., Chavarin, C. V., Semple, S. J., Magis - Rodriguez, C., & Pitpitan, E. V. (2018). Are men's misogynistic attitudes associated with poor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behaviors? An exploratory study of men in Tijuana, Mexico.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9(2), 314-318.
<https://doi.org/10.1037/men0000093>
- Ganem, N. M. (2010). The role of negative emotion in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6(2), 167-185.
<https://doi.org/10.1177/1043986209359558>
- Garcia, D. M., Schmitt, M. T., Branscombe, N. R., & Ellemers, N. (2010). Women's reactions to ingroup members who protest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importance of beliefs about inequality and response appropriaten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5), 733-745.
<https://doi.org/10.1002/ejsp.644>
- Georgeac, O., & Rattan, A. (2019). Progress in women's representation in top leadership weakens people's disturbance with gender inequality in other domai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8(8), 1435-1453. <https://doi.org/10.1037/xge0000561>
- Gresham, D., Melvin, G. A., & Gullone, E. (2016). The role of ang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sing symptoms and agg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9), 2674-2682.
<https://doi.org/10.1007/s10826-016-0435-4>
- Hammarström, A., & Phillips, S. P. (2012). Gender inequity needs to be regarded as a social determinant of depressive symptoms: Results from the Northern Swedish cohort.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0(8), 746-752.
<https://doi.org/10.1177/1403494812464915>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Harper & Row.
https://archive.org/details/developmentaltas0000havi_11u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https://www.guilford.com/books/Introduction-to-Mediation-Moderation-and-Conditional-Process-Analysis/Andrew-Hayes/978146254903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oiner, T. E., Jr., Metalsky, G. I., Katz, J., & Beach, S. R. H. (1999). Depression and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Psychological Inquiry*, 10(4), 269-27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004_1
- Kahn, K. B., Barreto, M., Kaiser, C. R., & Rego, M. (2016). How members of high status groups become allies for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5(1), 27-43.
<https://doi.org/10.1111/bjso.12117>
- Kim, S. W., Zhang, C., Chung, H., Kim, Y., & Choi, S. Y. (2020). Why do women value credentials? Perceptions of gender inequality and credentialism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73(4), Article e102158.
<https://doi.org/10.1016/j.ijedudev.2020.102158>
- Kinias, Z., & Kim, H. S. (2012). Culture and gender inequality: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perceiving gender inequal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5(1), 89-103.
<https://doi.org/10.1177/136843021140894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https://www.guilford.com/books/Principles-and-Practice-of-Structural-Equation-Modeling/Rex-Kline/9781462523344>
- Lam, M. (2004). The perception of inequalities: A gender case study. *Sociology*, 38(1), 5-23.
<https://doi.org/10.1177/0038038504039355>
- Landry, L. J., & Mercurio, A. E. (2009). Discrimination and women'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61(3-4), 192-203.
<https://doi.org/10.1007/s11199-009-9624-6>
- Lauritsen, J. L. & Heimer, K. (2008). The gender gap in violent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4(2), 125-147.
<https://doi.org/10.1007/s10940-008-9041-y>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https://doi.org/10.1037/a0033266>
- Macho, S., & Ledermann, T. (2011).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6(1), 34-43. <https://doi.org/10.1037/a0021763>
- McKay, M., Rogers, P. D., & McKay, J. (2003). *When anger hurts: Quieting the storm within*. New Harbinger Publications.
<https://www.newharbinger.com/9781572243446/when-anger-hurts/>
- Munar, A. M. (2018). Dancing between anger and love: Reflections on feminist activism. *Ephemera: Theory & Politics in Organization*, 18(4), 955-970.
<https://www.ephemerajournal.org/contribution/dancing-between-anger-and-love-reflections-feminist-activism>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https://doi.org/10.1037/a0016059>
- Poulin, F., & Boivin, M. (2000).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Evidence of a two-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2(2), 115-122.
<https://doi.org/10.1037/1040-3590.12.2.115>
- Prinstein, M. J., & Cillessen, A. H. (2003). Forms and functions of adolescent peer aggression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peer status. *Merrill-Palmer Quarterly*, 49(3), 310-342.
<https://doi.org/10.1353/mpq.2003.0015>
- Radke, H. R. M., Hornsey, M. J., & Barlow, F. K. (2016). Barriers to women engaging in collective action to overcome sexism. *American Psychologist*, 71(9), 863-874.
<https://doi.org/10.1037/a004034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https://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 Raykov, T., & Marcoulides, G. A. (2000). A method for comparing completely standardized solutions in multiple group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7(2), 292-308.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702_9
- Remen, A. L., Chambless, D. L., & Rodebaugh, T. L.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2), 151-159.
<https://doi.org/10.1111/1471-6402.00053>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Springer.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1-4612-3824-9_5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207-232.
<https://doi.org/10.3109/01460869509087271>
- Stop Hate UK. (2021). *Annual statistical report 2019-2020*.
<https://www.stophateuk.org/resources/annual-reports/>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John Wiley & Sons.
<https://www.wiley.com/en-us/Microaggressions%20Bin%2BEveryday%2BLife%3A%2BRace%2C%2BGender%2C%2Band%2BSexual%2BOrientation-p-9780470491409>
- World Health Organization. (n.d). *Depression*. Retrieved (2022.10.24.) from
<https://www.who.int/health-topics/depression>
- Xiong, R., Xia, N., & Li, W. (2021).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ggression among Chinese migrant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negative emo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2, 651270.
<https://doi.org/10.3389/fpsyg.2021.651270>
- 원고접수일 : 2025. 07.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5. 10. 28.
 게재확정일 : 2025. 11. 14.

Mediating Effect of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and Depression in 2030 Generations

Ji-Hyo, Mun¹⁾

Sung-Man, Bae²⁾

¹⁾Department of Psychology, Dankook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Dank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in the association between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ults aged 19 to 39. An online self-report survey was administered to 471 adults aged 19 to 39 (238 men and 233 women), and the resulting data were analyzed. Analytic procedure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exerted a direct effect on depressive symptoms.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each accounted for a partial mediating role, and together they formed a sequential dual mediation pathwa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stat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represent salient psychological risk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in adults in their 20s and 30s.

Keywords : depression, gender inequality perceptions, state anger, reactive aggression, 2030 generation

† Corresponding Author: Sung-Man, Bae /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Dank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31116) 119, Danko-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 Tel: 041-550-8142 / E-mail: spirit73@hanmail.net